

이스라엘: 동부 이디시 유대(Jew, Eastern Yiddish-Speaking of Israel)



인구 : 382,000(joshuaproject.net)

언어 : 동부 이디시어

종교 : 민속종교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1950년)

개요 / 역사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이라크와 이란에서 가장 큰 비무슬림 소수민족이다. 이슬람이 공식 종교가 되기 전 까지 유대인 공동체은 수세기 동안 잘 지내고 있었다. 이슬람이 공식 종교가 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고립되어졌고 많은 차별과 박해를 겪어야 했다. 때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제정과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란과 이라크를 떠났다. 남은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로 고충을 겪었다.

유대식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동국가라는 반지의 빛나는 보석이라고 본다. 2000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있으면서 현존하는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아주 움직임은 1880년대에 국가적 문화적 부흥 운동인 “시오니즘”과 함께 시작 되었다. 소수의 아주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제정되면서 흥수처럼 커지게 되었다.

생활양식

언어는 이 지역의 유대인 중에서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기도나 종교적이고 법적인 문제에서는 공통어로 쓰이는 반면 가정에서는 주로 지방어나 방언을 쓴다. 파시(Farsi –이란어)와 아랍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이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디시(Yiddish-히브리어적인 요소가 있는 독일 방언)와 러시아어 와 유디(Yudi), 라디노(Ladino) 또는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언어 또는 이민해 온 부모가 쓰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은 도시에 산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시골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그러한 시도들은 종종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민족적 갈등을 일으켰다.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키부침(Kibbutzim-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또는 정착 형태).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주자들이 하나의 유대 민족으로 융합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러나 과거의 다른 이주 그룹들은 오늘날의 민족적 그룹이 되었다. 민족성과 더불어 사회 계층이 형성되었다. “한 사람의 민족적 배경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활수준을 만든다” 그들의 조상이 아프리칸 아시아인 “오리엔탈 유대인(Oriental Jews)” 낮은 사회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유대 공동체와는 달리 대가족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삶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가족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10학년까지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의무적인 복역은 성인으로 커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

학교에서의 유대인 교육의 쇠퇴는 유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법에 쓰인 사업장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는 돼지고기 판매 금지와 같은 많은 종교적인 법은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비록 유대 종교력에 따른 모든 명절들이 지켜지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사교적인 가치가 더 많이 부여 된다. 반면에 히브리어 및 유대 연구 와 예술에 있어서 문화적 부흥이 있어 왔는데 특별히 춤, 문학, 음악 그리고 연극 분야에서 문화적 부흥이 나타났다.

종교

랍비 유대교 (Rabbinical Judaism) 은 이 지역의 주요 종교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는 정통적인 유대교(Orthodox)이다. 랑비 유대교는 성전을 회당으로 제사장직을 랑비로 회생 제사 의식을 기도 예배로 바꾸었다. 토라(성경의 첫 다섯 번째 책의 히브리어 이름) 연구와 약속의 땅에서의 국가적인 회복에 대한 필요의 증가와 다가 올 세상에 대한 준비로서의 이 세상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강조 되어졌다. 그러나 대략 삼분의 또는 사분의 삼정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명목상의 유대인인 (Non -observant)이다. 자신을 종교적으로 여기는 유대인은 전통적인 신앙과 제도를 고수하는 정통적인 유대교(Orthodox)와 전통적인 긴안을 유지하나 더 이상 엄격하게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현대적인 유대교 (Morderns)로 구분된다. 거룩한 장소는 국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종교 위원회와 랑비는 국가에서 고용한다.

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과의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언약을 완성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거부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차별되고 핍박 받았다. 감정적인 치유와 용서의 경험이 필요되어진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반유대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

자 .또한 민족적 정체성으로서 그들의 “유대인 됨(Jewishness)”을 보고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은 유대인 사이에서 영적 갈망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기도제목

- *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일할 크리스천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자.
- * 성령님께서 중동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 *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도록 기도하자.
- * 주님께서 크리스천에 개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 * 주님께서 자신을 꿈과 환상을 유대인들에게 계시로 나타나시도록 기도 하자.
- *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의 민족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전할 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자.
- * 강한 지역 교회가 중동 유대인들 사이에 세워 지도록 기도하자.
- * 이 민족의 주요 언어로 예수 영화가 번역되어 상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